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어린이 책의 세계

아동출판사 · 전문서점 ·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하게 꾸며져야

사이버 공간이 아동출판의 '신대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웅진출판·두산동아·재능교육·대교·청솔·사계절·창작과비평사·어린이 전문서점 푸른하늘·동화나라·어린이도서관 등 아동관련 출판사·서점·도서관 등이 웹 공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시대의 신대륙을 개척하고 있다. 삼성당, 한솔교육 등에서도 홈페이지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약 1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용자가 평균 51%씩 급증해 2002년에는 전화수요를 육박하는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상용화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증거다.

다양한 검색기능, 편리한 온라인 주문

현재 대형종합출판사와 학습지 출판사들은 규모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개통한 웅진출판사 홈페이지는 판매되는 모든 전집물 상품과 주요 단행본 상품, 학습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학습지 회원가입, 잡지정기구독 신청, 단행본 구입 주문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공연장·미술관·놀이시설·레저 등 가족이 함께 가볼 만한 곳 중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 곳을 링크시켜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볼 수 있다.

9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두산동아

어린이책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

출판사·서점	주소
웅진출판사	http://www.wj.co.kr
두산동아	http://www.dong-a.com
재능교육	http://www.jei.co.kr
대교	http://daekyo.co.kr
청솔	http://chungsol.co.kr
창작과비평사	http://www.changbi.co.kr
사계절	http://sakyedul.co.kr
키드북	http://www.kidbook.com
푸른하늘	http://www.skyblue.co.kr
어린이도서관	http://210.117.211.180

의 홈페이지는 두산세계대백과사전·리더스 다이제스트·여성잡지·사전·학습서·단행본·멀티미디어 등 자사제품의 홍보와 소개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도서는 창작동화·모험동화·그림동화·학습단행본으로 분류해 책표지 사진과 함께 글쓴이·옮긴이·그린이·면수·가격·발행일·내용요약·화제소개(수상·추천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통신판매도 한다.

학습지에 주력하고 있는 재능교육과 대교도 웹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소개, 연혁, 자사 상품소개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재능교육의 경우 학습시스템에서 각 학습지마다 '예제문제 풀기'란을 두어 학습지의 샘플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대교에서는 눈높이 상담실에 Q&A 코너를 마련해 눈높이 학습도 상담도 해준다.

아동도서 전문출판사인 청솔은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지혜를 주는 책, 교훈을 주는 책, 궁금증을 주는 책, 꿈과 용기를 주는 책, 즐거움을 주는 책,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을 위한 책 등으로 나누어 자사의 도서목록을 꾸몄다. 어린이 관련 사이트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지, 어린이책, 교육관련기관 등 관련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성인물과 함께 아동단행본도 펴내고 있는 종합출판사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지난 달 1일에 문을 연 창작과비평사의 홈페이지 디지털 창비(Digital Changbi)의 '어린이' 메뉴에서는 창작동화·전래동화·세계동화·위인전기·동시·동요·과학동화·이야기집·세계민화 등으로 분류된 상세한 어린이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개설해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간의 공개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새로 나올 책 사이트를 만들어 근간도서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려준다.

사계절도 지난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메뉴는 도서목록·베스트셀러·신간안내·책관련 사이트·게시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간안내 항목을 클릭하면 책을 펴내면서, 책내용, 지은이에 대하여, 그린이에 대하여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어린이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관련 사이트에서는 전국



서점·잡지사·출판사 등 다른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키드북, 푸른하늘 등 가상서점도 개설

아동전문서점들도 가상서점을 개설해 간편한 검색과 함께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어린이 전문서점인 일산 '동화나라'와 '바우정보시스템'에서 공동운영하는 키드북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책제목·출판사·저자, 연령별·도서종류별 분류에 따른 검색 등을 입력해 쉽게 원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에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47종의 도서를 판매하는 할인도서 코너, 아동에게 권장할 만한 도서 40권을 안내하는 추천도서, 독서상담 코너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달 중에 아동작가가 창작동화를 연재하고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서 토론한 결과도 정리해 올릴 예정이다.

어린이 전문서점 체인점인 '서당'에서 운영하는 푸른하늘은 어린이에게 먼저 읽고 싶은 좋은 책 1500여권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한다. 새로 나온 책에서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책, 초등학생을 위한 책으로 나누어 나이별, 항목별로 도서를 세분화해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유일한 어린이 전용 공립도서관으로서 지난해 5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어린이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실별안내·이용안내·자료현황·자랑거리·행사/사업·시설현황·자료검색·신문검색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22개의 서울시립도서관과 링크되어 있다. 서명·서명단어·저자명·발행자·제어·분류구분(KDC, DDC, KDCD)·분류기호·ISBN·

발행연도 등으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올해 8월경 새로운 홈페이지 선보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독자와 직접 맞대면하면서 책을 홍보할 수 있고 책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독자와 함께 책을 만든다는 이미지도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연출하고 홍보할 수도 있다. 가상서점의 경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온라인상에서 도서를 주문·판매·결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 사이트의 검색·조회하는 기법에 못 미치고 온라인상의 판매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국내의 인터넷 환경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고 해킹 등 보안의 허점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린이나 부모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동화상이나 다양한 그래픽 자료들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책장을 넘기듯 이곳저곳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제 그 첫발을 디뎠다. 월드정보통신의 정재근 대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은 그 어느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진열공간이 무한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정확한 책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 박천홍 기자